

고려사[高麗史]

조선인이 편찬한 고려의 기전체 역사서

1449년(세종 31) ~ 1454년(단종 2)



1 개요

『고려사』는 조선 건국 이후 전 왕조인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관찬 사서이다. 1449년(세종 31)에 편찬을 시작해서 1451년(문종 1)에 완성하였고, 1454년(단종 2)에 간행되었다. 고려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제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고려시대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2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다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등 총 139 권으로 이루어진 기전체(紀傳體) 사서이다. 기전체는 기(紀)·전(傳)·지(志)·표(表)의 서술 체재로,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서 비롯한다.

왕조 교체 이후 전 왕조의 역사를 기전체 사서로 편찬하는 것은 중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마천이 상고시대부터 한(漢) 무제(武帝)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사기』부터 장정옥(張廷玉) 등이 명의 역사를 쓴 『명사(明史)』까지 ‘24사(史)’는 중국의 대표 정사(正史)가 되었다. 이와 같이 왕조 교체 이후 전 왕조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새 왕조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역사 편찬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왕조 교체 후 전 왕조의 역사책을 만든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처음이다. 고려 김부식(金富軾) 등은 1145년(인종 23) 인종(仁宗)의 명으로 삼국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역사를 서술하였

다. 이 역시 본기(本紀), 지, 표,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그러나 『고려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본기가 세가로 명명되었다. 이는 조선의 대명관계와 주자학적 명분론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에서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겠다는 논의는 건국 직후부터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攄) 등에게 고려 역사를 편찬하도록 명했다. [관련사료](#) 그리하여 이들은 3년 뒤 총 37권의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하였지만, [관련사료](#)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3 개정을 거듭했던 『고려사』 편찬

정도전이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죽임을 당한 후 『고려국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고려국사』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비판이 이어졌다.

1414년(태종 14)에 태종은 고려사를 다시 편찬하게 했다. 조선에서 '위조(僞朝)'로 규정한 우·창왕대 이후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관련사료](#) 조정의 신료들은 고려 말 공민왕 이후의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고, 태종은 하륜(河崙), 남재(南在), 이숙번(李叔蕃), 변계량(卞季良) 등에게 고려사 개수(改修)를 명하였다. [관련사료](#) 하지만 1416년(태종 16) 하륜이 세상을 떠나자 개수 작업은 중단되었다. [관련사료](#)

다시 고려사의 수정을 논의한 것은 세종 즉위 직후 경연(經筵)에서였다. 『고려국사』에 대한 세종의 비판적 인식은 이전 태종대에 거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도전에 의해 공민왕 이후의 기록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인식은 당시 상왕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발휘하였던 태종의 영향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이후 고려사 개수의 원칙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직필(直筆)'로 정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관련사료](#)

1419년(세종 1)에 세종은 유관(柳觀)과 변계량에게 고려사 개수를 명했고, 유관 등은 1421년(세종 3)에 개정된 고려사를 올렸다. [관련사료](#) 그러나 이 역시 반포하지 못했다. 고려시대의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체제는 조선시대 외교관계와 상충하는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과거의 왕실 용어나 정치제도를 고쳐 쓸 것인지[개서(改書)], 있는 그대로 쓸 것인지[직서(直書)]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유관, 변계량 등은 '개서'의 원칙을 고집했지만, 세종은 '직서'의 원칙으로 고려사를 서술해야 함을 피력하며 다시 개수(改修)할 것을 명하였다. [관련사료](#)

1423년(세종 5) 말에 개수하기 시작한 고려사는 1424년(세종 6) 8월에 완성되었다. 이는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는데, '개서'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변계량의 반대로 반포되지 못했다. [관련사료](#)

세종의 '직서' 원칙은 한 발 물러나게 되었지만,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신하들을 설득해 나갔다. 1432년(세종 14)에 세종은 고려사를 편년체(編年體)로 수찬하게 되면 사실을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편년체 서술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고려사 편찬이 재개된 시기는 1438년(세종 20)부터 1442년(세종 24)까지이다. 신개(申槩)와 권제(權躋)는 내용을 보충하고 이전에 개정한 내용을 '직서'의 원칙 하에 편년체 형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훗날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 혹은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典)』으로 불리며, 1448년(세종 30)에 간행되었다. [관련사료](#) 그러나 책임자 중 한 명인 권제가 자기 집안에 관련된 사실들을 왜곡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공정성이 논란이 되어 결국 반포되지 못하였다.

고려사는 다시 1449년(세종 31)에 편찬이 시작되었다. 세종은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이선제(李先齊) 등에게 개찬을 명하였다. 이때의 개찬은 권제가 왜곡한 부분을 바로잡고, 소략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형식을 기전체로 바꾸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김종서와 정인지가 편년체의 불편함을 세자(문종)에게 건의하였고, 세자가 세종에게 아뢰어 결국 기전체를 채택하게 되었다. [관련사료](#)

이처럼 몇 차례의 개수과정을 거쳐 1451년(문종 1)에 태조에서 공양왕까지 32명의 왕의 연대기인 세가, 천문지(天文志)에서 형법지(刑法志)까지 10조목의 지, 연표, 1,008명의 열전이 기술된 『고려사』가 편찬되었다. 전 왕조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조선 건국 이후 약 57년 만에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4 『고려사』 권1부터 권139까지

『고려사』권1부터 권46까지는 고려 국왕의 연대기인 세가이다. 태조에서 공양왕대까지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는데, 조선이 '위조(僞朝)'로 규정한 우왕과 창왕은 열전(列傳) 권133에서 권137의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권47부터 권85까지는 지(志)이다. 천문지(天文志), 역지(曆志), 오행지(五行志), 지리지(地理志), 예지(禮志), 악지(樂志), 여복지(輿服志), 선거지(選舉志), 백관지(百官志), 식화지(食貨志), 병지(兵志), 형법지(刑法志) 순이다.

권86부터 권87까지는 연표이다. 중국의 왕조들을 상국(上國)으로 분류하여 위에 쓰고, 고려를 그 밑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왕의 연호, 국왕 책봉, 사신 파견, 변란 등 국가와 왕실의 안위와 관련되는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권88부터 권137까지는 열전이다. 후비(后妃), 종실(宗室), 제신(諸臣), 양리(良吏), 효우(孝友), 열녀(烈女), 방기(方技), 환자(宦者), 흑리(酷吏), 폐행(嬖幸), 간신(姦臣), 반역(叛逆) 등 13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마지막 권138, 권139는 목록으로, 지금의 차례(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 논란이 많았던 『고려사』의 간행과 반포

『고려사』가 완성된 직후에는 편년체 구성인 『고려사절요』의 편찬이 시작되어 1452년(문종 2)에 완성되었다. [관련사료](#) 간행은 『고려사』가 1452년(단종 즉위) 11월에, 『고려사절요』가 1453년(단종 1) 4월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고려사』는 소량만 인쇄해서 내고(內庫)에 보관한 반면, 『고려사절요』는 널리 배포

하였다. 그 이유는 이듬해 이극감(李克堪)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데, 『고려사』 열전에 사람들의 시비득실(是非得失)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가 두려워한 나머지 반사(頒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사료](#)

이극감의 건의로 『고려사』가 다시 간행되었지만, 부수가 많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후에도 『고려사』 반포에 대한 요청이 이어진다. [관련사료](#) 양성지(梁誠之)는 『고려사』가 잘 반포되지 않는 이유를 역란(逆亂)의 기록이 많고 참칭(僭稱,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칭호)한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역란이 과거 역사에서 어느 나라든 있는 것이고, 참칭은 우리나라를 중국 내 제후국과 동일시해서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관련사료](#)

『고려사』의 간행과 반포는 성종 즉위 이후에 이르러서야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었다. 성종은 경연에서 『고려사』를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지금 남아있는 판본들도 대부분 1474년(성종 5)에 간행된 을해자본(乙亥字本)이거나 이를 복간한 것이다.